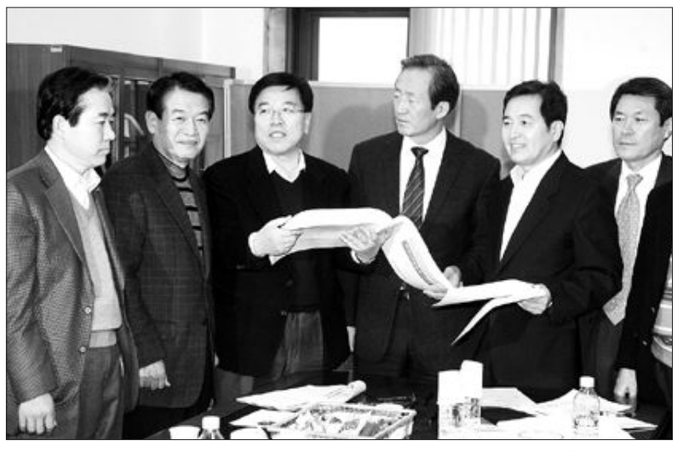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한나라당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검토회의를 방문, 심재철 위원장과 김광림 간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왼쪽〉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4대강 예산 논란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野 "보 높이 낮추자" 與 "더 이상 양보 못해"

4대강 예산 싸고 막판 3자협상 결렬
"수공사업 추경 심사" "절충안 내놔야"

여야의 4대강 예산 대치가 계속되면서 대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는 등 '2+2' 라인 등 각종 채널을 동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 견해차로 협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특히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가진 막판 대협상도 무위로 돌아가면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 주목을 끌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치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27일 4대강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보 설치 높이를 정부 계획인 5.3m~11.2m에서 3m로 낮추고 전체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수공의 4대강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2월 추경 예산으로 심사하고 연내에는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의 4대강 예산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협상안에는 4대강 준설량을 낙동강 약 1억㎥ 등 총 2억3천만㎥으로 제한하자는 요구 사항도 담겼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예산 논란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이라며 "지금 국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런 제안을 정부 여당이 받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이것이 마지막 협상제안일지 모른다"며 "청와대 대변인이 대운하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 진정이라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준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상황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도 "결국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악의 상황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으로선 당내외 강경파로부터 원칙 훼손이란 비판을 받을 만큼 최대한 양보한 것이니, 그 이상을 요구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밟고 넘어가란 최후통첩인 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니 추가로 내밀 카드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예산 일부와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조달비용(이자 800억원) 일부에 대한 감액 의향을 밝힌 만큼 민주당도 이에 대한 절충안을 내놔야지,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전략은 예산 정국에서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극대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정략적인 것으로 폄하했다.

장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한 뒤 "결론적으로 나라 살림을 볼모로 해서 정략적인 접근 방법을 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자칫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청와대도 어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 운운하는 것은 논리의 궁핍"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형오 의장 '사퇴 배수진'

여야 예산안 막판 대타협 압박 고육지책

김형오 국회의장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여야 지도부와 함께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여야의 막판 대타협을 압박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이 이날 성명에서 쟁점사항인 대운하사업 의혹에 대해 국회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을 28일까지 결론내자고 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협상을 주선하기도 했다.

김 의장이 이처럼 사퇴까지 거론하며 나선 것은 준예산 사태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 등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풍토를 막는 당내외 강경파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중재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타협만 압박하는 것은 대외 홍보용일뿐 실질적인 중재노력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날 오후 김 의장의 주선으로 가진 양당 원내대표 회담마저 여야간 확연한 입장차로 무위로 돌아가면서 오는 29~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전날 밤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여야 중진의원과 심야회동을 갖고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 재판' 속도 낼까

집중심리 관심… 지방선거전 선고 가능성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 시기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된데다 재판 결과가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전체적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치적 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집중심리'를 택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중심리는 특정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연속으로 재판을 열고 심리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재판예규도 처리가 지연돼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직 총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이야말로 집중심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미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다, 검찰도 야권의 불필요한 공세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집중심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집중심리 도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데다 새로운 쟁점이나 변수가 부상할 수 있어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번 재판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2일 이전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투표일 이전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내년 5월 초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후보 경선 이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몸낮추는 정동영·손학규

정대표 곽영욱 연루 의혹속
적극행보땐 자중지란 우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인사로비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무소속의 정동영 의원이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단 연내 복당을 추진해왔던 정동영 의원은 예산 국회 이후로 복당 시기를 조정하며 당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움직일 경우, 자중지란을 일으켜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의 조기 복당을 주장하며 '지방선거 전 조기전대론'을 만지작거려온 비주류 측도 지난 22일로 계획했던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내년 1월14일로 미루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지난 재보선 이후 다시 '춘천 칩거'에 들어간 손 전 대표도 종종 서울에 들르긴 하지만 현실 정치와는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다. 정치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변 인사들에게도 "당이 뒤숭숭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전면투쟁에 나서고 있는데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손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신 것 같다"며 "정치 복귀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박주선 대한명인회 명예총재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사진)이 대한명인회 명예총재에 선임됐다.

(사)대한명인회는 지난 26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총재단 취임식 및 대한명인 추대식을 열고 명예총재에 박 최고위원을, 명예부총재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각각 선임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후보인 정명숙 선생,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 목상감 분야 박동귀 선생 등 25명을 대한명인으로 새롭게 추대했다.

대한명인회는 한국 전통문화 가치 창달을 목적으로 2004년 11월 창립한 종합전통문화 선양단체로 현재까지 국악, 공예, 음식, 인문, 전통주 등의 분야에서 총 211명의 명인을 배출했다.

양형일 시민대상 정책제안 모집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양형일 전 국회의원은 27일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시정관련 정책제안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정책제안 공모 프로그램은 시민이 생활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내년 1월31일까지 시정 개선 의견이나 광주 발전 제안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형식이나 분량에 상관없이 양형일 블로그(http : //blog.daum.net/hiyang)나 이메일(yyy532@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이메일 문답이나 전화 인터뷰,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채택되며, 내년 2월2일 예비후보등록 후 정책발표회를 통해 공개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다이너스티CC 회원모집

1. 코스규모 : 18홀, Par 72(전장 : 6,180m)
2. 모집계획

회원권 종류 (정회원)	모집 인원	분양금액	회원권 종류 (주중회원)	모집 인원	분양금액
무기명법인 1차	3	1,200,000	주중1차회원	7	35,000
무기명법인	11	1,000,000	주중2차회원	14	45,000
플래티늄1차 회원	35	590,000	주중3차회원	5	50,000
플래티늄회원	18	550,000	주중4차회원	5	60,000
플래티늄2차 회원	4	510,000	주중5차회원(개인)	130	25,000
VIP1차 회원	84	300,000	주중5차회원(법인)	80	50,000
VIP회원	19	280,000			
VIP2차 회원	3	275,000			
골드회원	227	150,000			

3. 모집기간
2009년 12월 28일 ~ 2010년 2월 28일 (63일간)
4. 구비서류
가. 입회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진1매
나. 기타
-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인감증명서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감증명서 1부/재직증명서 1부
5. 수납은행 : 광주은행 계좌번호 : 730-127-005997
예 금 주 : 에이취.에이취레저

2009년 12월 28일

(주)에이취.에이취레저 담양다이너스티CC
대표이사 차 성 만

문의 ☎TEL : 061) 380-7610 FAX : 061) 380-7519

그 명성, 그대로, 땀과 열정과 합격의 명예가 함께합니다.
2010년 시험 합격을 위한 최선의 선택!
9·7급 공무원 강좌
특보
· 2010년 공무원 정원 4,600여명 증원,
· 2011년까지 세무직 1472명 증원,
· 2013년까지 소방직 8000여명 증원 예정
"이제 대세(大勢)는 '무등고시학원' 입니다"
【정규종합반, 야간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일반행정직/세무직 출관직/관세직 9급교육행정직
겨울방학 大 개강 1월 4일(월)
법원직/검찰직 교정직/소방직 복지직/기술직
2010대비공개설명회 : 12월 9일 / 12월 26일 15:00 본원 201 강당
당일 공개설명회 참석 후 등록시 공통과목 교재 무료제공
10급 기능직 특채 및 일반직 전환 대비
2010년 전직, 승진시험 및 10급 기능직 특채 대비
박찬걸, 임강석 교수팀, 연중상설 강의 개설
• 각 과목별 8주완성
• 야간반, 주말반 동시 개강
개강 및 공개 설명회 1월 9일(토) 14:00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위치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4560

분묘개장공고(1차)

국도해양부 고시 제2008-520호('08.09.23)에 의거 시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숙박시설) 조성사업구역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분묘의 위치 (여수시 덕충등)	기수
141,142,145,145-2,146-14,148,166,168-1,169,218,219,222-1,241,242,252,252-2,252-5,252-6,257-1,263,267-2,268-6,271-17,272-5,276-1,276-5,277-1,278,285-3,285-4,286,286-2,286-3,288-3,288-9,298,299,305-6,338,351,361-1,361-2,371-2,371-4,373-1,384-1,386-4,386-8,386-13,386-14,386-16,386-17,386-18,386-19,389-1,389-2,393-2,394-1,394-5,394-17,395-2,398-1,398-3,398-4,399,404-1,405-1,405-5,408,409-1,409-3,412,413,414,414-1,415,416,417-2,417-3,417-4,421,421-1,421-2,421-3,422-2,423-1,424,431,431-1,438-5,442-3,444,445,446,447,448,449,451,452,453-2,466,468-1,475-1,482,483,485-5,485-6,485-7,485-9,486-2,490-4,492-4,493-1,494-9,499-1,502-4,502-11,502-12,504-1,514-2,557-2,561-1,561-2,570,573,574,575,576,579,581,582,582-2,587,588-3,588-4,589,590,592,594,595-1,595-3,596,596-1,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1,607-1,607-2,607-4,608,609-2,610,611-1,612-1,613-1,614-2,614-3,615-1,646-1,647-1,648,649,650,651,652,655,658-1,660-1,671-7,865-5,865-6,866-1,867-1,870-1,871-1,963,970,970-1,971,971-1,972-2,973,974,977,977-1,979,983,984,988,989,992,993,994,994-1,995-1,996-2,1000-2,1018,1022-2,1023-2,1024-3,1024-4,1027-1,1028-3,1030-4,1036-1,1037,1038,1039-1,1040-4,1040-5,1041-1,1041-2,1042,1045-3,1047,1050-1,1051-1,1051-2,1051-3,1051-8,1051-15,1051-16,1051-17,1055-2,1057-1,1057-2,1059-1,1063,1067-3,1068,1070-1,1070-2,1071,1071-1,1071-6,1089,1089-2,1092-2,1098-3,1098-15,1099-5,1099-6,1106-2,1107-1,1110-1,1111-9,1111-15,1117-1,1117-5,1117-7,1117-11,1117-12,1117-13,1119-1,1119-5,1120,1121,1122,1123,1126,1127,1131,1137,1144-1,1148,1149,1150,1151,1152,1153,1154,1155,1156,1159,1161,1275-5,1305,1305-1,1306-1,1307-1,1314-4,1317-2,1318-1,1319,1321,1322,1323-1,1323-2,1325-2,1328-5,1329-1,1329-2,1339,1339-2,1339-4,1339-5,1339-10,1339-11,1340,1341,1342,1343,1344,1345,1346,1347,1348,1349,1350,1351,1352,1353,1354,1355,1356,1358-1,1359,1360,1361,1361-1,1362,1362-2,1362-3,1363,1363-1,1363-2,1364,1365,1366,1367,1368,1369,1370-1,1373-18,1378-8,1379,1380,1381,1381-4,1381-5,1381-9,1383-2,1383-3,1383-4,1383-5,1383-7,1383-8,1385-1,1385-13,1386-12,1386-14,1387,1388-12,1390,1390-1,1391-1,1393-1,1394-1,1395,1397,1398,1399,1400,1401,1402,1403,1404,1405,1406,1407-6,1418,1418-1,1420-1,1449-1,1450-2,1452-3,1452-5,산65-1,산65-4,산66-2,산67,산70-8,산70-9,산70-10	33기

※ 상기 지번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숙박시설) 조성사업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공고기간 : 2009. 12. 28 ~ 2010. 3. 28 (3개월)
3.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개장사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숙박시설)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나. 개장후 안치장소 : 여수시 공설납골당(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90번지)
다. 안치기간 : 2010 ~ 2020 (10년간)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유연분묘 - 분묘신고 및 연고자 개장 후 이장비 지급
5.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가. 성 명 : 여수시 공설납골당
나. 주 소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90번지
다. 연 락 처 : ☎061)690-2058
6. 신고장소 및 문의처
·신고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엑스포타운 보상사업소 (☎061-662-0530)
7.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지번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8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